인문논총 제70집 (2013), pp. 465~488

서평: Peter J. Bräunlein(2010), *Passion/Pasyon, Rituale des Schmerzes im europäischen und philippinischen Christentum*, Wilhelm Fink Verlag.

페터 브로인라인의 『파시온/파스연』(*Passion/Pasyon* 2010)과 '성스러운 고통'

최 정 화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1996년 저자는 필리핀 카피탄간(Kapitangan)의 작은 시골 교회에 서서 한 여인을 보고 있다. 그 여인은 널빤지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야말로 2000년 전 예수처럼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다. 단지 스스로 자처했고, 몇 분에서 몇 십분 동안만 매달린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른 쪽에서는 채찍질당하는 사람들의 피로 범벅된 등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고 있고, 등에서 나오는 피는 작은 도랑이 되어서 교회 옆을 흐르고 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문과도 같은 육체적 고통에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기에 열정적이고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십자가형에 처하고 채찍질하는 관행이 유행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자는 필리핀을 찾아가서 연구를 시작했다. 필리핀의 종교 연구는 곧이어 그리스도교의 모태인 유럽 종교사로 이어져서 저자는 '고통'과 '몸'의 의미를 밝히는 긴 학문적 여정을 한다. 방대한 문헌 자료를 통해서 몸의 고통이 가지는 종교적

인 의미에 대한 유럽 그리스도 문헌의 역사적인 연구, 근대 유럽의 몸에 대한 담론과 더불어 필리핀이 식민지화되면서 가톨릭화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창조된' 가톨릭 종교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시켰다. 이 저서는 역사와 실제 현장을 아우르며 유럽과 아시아적 시각 양쪽을 담아내는 균형성 있는 연구이다.

소개하고자 하는 이 책의 제목은『*Passion/Pasyon*』이다. 한국어 발음을 표기하면 파시온/파스연으로, 둘 다 '그리스도의 수난'을 이야기한다. 전자는 유럽 발음이고, 후자가 필리핀 발음이다. 이 두 개의 단어를 나란히 병렬해 놓은 제목(Passion/Pasyon)은 유럽과 필리핀의 '수난'이 동시에, 그리고 같은 선상에서 편견없이 다루어진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암시한다. 부제는 '유럽과 필리핀 그리스도교의 고통의 의례'(Rituale des Schmerzes im europäischen und philippinischen Christentum)이다. 저자 페터 브로인라인(Peter Bräunlein)은 현재 독일 괴팅엔 대학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종교학자이자 문화 인류학자이다. 종교학, 미디어학, 미학, 인류학에 걸친 다양한 학적 영역을 아우르는 '문화학'(Kulturwissenschaft)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아직 독특한 이론을 내세우며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학자의 반열에 속하지는 않지만, 다학문적인 접근 방식과 더불어 문헌과 현장을 넘어드는 탄탄한 연구로 특징지을 수 있는 50대의 중견 연구자이기에 그의 저서를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 학자의 장점은 문화영역에 속하는 다양한 분과 학문들의 방대한 이론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점, 이러한 이론적인 박식함 속에서 실증적인 종교문화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실증성은 고대부터 현대를 아우르는 문헌해독과 종교인류학자로 다져진 면밀한 현장연구에서 나온다.

유럽인 저자의 눈에 '이질적'으로 보이는 필리핀의 피흘리는 고행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상당한 양의 문헌을 통해서 유럽 가톨릭 고행의 역사를 추적하는 이유는, 저자가 '나'와 다른 종교와 문화를 한없이 낯설게

타자화시면서 이국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서론에서 쓴다. 피흘리고 고행하는 그 이질성이 사실은 자기가 속한 문화적 전통에서도 그대로 있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 유럽과 필리핀의 의례적 고통 이해하기

1부(유럽 종교사에서의 자기 채찍질과 십자가형)에서는 유럽 가톨릭의 역사에서 스스로에게 가하는 '채찍질'(Selbstgeißelungen)과 '십자가에 못 박힘'(Selbstkreuzigungen)의 역사에 대해서 풍부한 예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낯설음을 드러낸다.

지중해, 근동과 중동의 고대 문화권에서 채찍질은 고문, 징계, 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회초리, 밧줄, 가죽끈, 쇠사슬 등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때리고 고문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자주 사용되었던 형벌이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고문의 용도로 채찍질을 사용했다는 기록들이 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실제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고문당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즉 '순교'가 적잖이 있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채찍질은 물론 예수가 받은 채찍질이다. 예수에게 가해졌던 채찍질은 이상하기 짝이 없는 예외적인 잔인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로마의 형법 체계에서 사형수들에게 으레 따라오는 형벌의 일부였다. 특히 십자가형 전에 가하는 채찍질은, 그 역사가 그리스 시대까지 올라가는, 고대 로마사회 형벌의 규칙이었다.

그리스도교가 탄생한 이후 1000년 동안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자해를 가하는 신심은 낯선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교의 첫 밀레니움인 기원후 1000년 말경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금욕의 정도가 점점 더 강렬해지고 감정적이 되어 갔다. 강렬하고 감정적인 금

욕은 10세기와 11세기의 전환기에 이탈리아 중부 지방 움브리엔(Umbrien)의 수도원에서 시작된 후 소수의 수도원과 은둔자들 사이에서만 행해지다가, 이탈리아에서부터 생긴 종교적 운동의 여파로 일반 민중들까지 퍼져 나갔다. 수도승들과 참회전문가로 존경받았던 그리스도교 은둔자들이 가톨릭 신심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모델이 되었고, 일반 수도원들도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신앙풍을 수도원의 일반규칙으로 받아들이던 관행이 중세에 퍼졌다. 이와 더불어 12세기부터는 고난을 강조하는 신비주의가 발전했다. 특히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자발적인 종교적인 고난을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고난수행이 유럽 전역에 걸쳐서 일반인들에게도 수용되어, 중세 종교성의 핵심이 되었다.

13세기부터 14세기까지 가톨릭 수도 전통에서는 종교적인 동기에서 스스로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가 신비주의의 이상이 되었다.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이 고난과 연결된 신비주의적 헌신의 기술이 되었다. 유럽 중세시기 102명의 순교자를 형상화한 수도원 그림에 있는 문구들은 “창백한 피부와 뒤틀린 신체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장식한다.”라든가 “나는 침묵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3년 동안 입 안에 돌멩이를 집어넣고 다녔다.” 혹은 “네가 만약 병들었다면 기뻐하라. 하느님이 너를 생각해 준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67쪽)라는 문구들이 붙어 있다. 채찍질뿐만이 아니라 단식, 극도의 추위에서 견디기, 더러운 참회 상의를 입기, 쇠목걸이, 딱딱한 잠자리, 무릎 꿇기와 같은 고행의 기술들이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에서 유행했다.

고난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체험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와 합일되는 신비의 경지(unio mystica im Leiden)가 중세 신비주의의 절정에 서게 된다. 종교인들에게 ‘모방’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신화와 경전 속에 나오는 신들과 영웅들의 행위는 기꺼이 모방된다. 그것이 살갗이

벗겨지고 뼈가 흐물거릴 정도의 아픔을 동반하더라도 그렇다. 중세 유럽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Passion Christi)을 모방하는 것은 육체적 아픔을 통해서 '신과 내면적으로 융합되는 것'(innige Verschmelzung mit Gott)이었다.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이러한 '고통의 신비주의'가 수녀원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었고, 이 시기의 여성 신비주의자들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신비체험의 전형적이고 명백한 여성적 영성의 절정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스스로의 몸을 가혹하게 학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고난의 신앙심'(Leidensfrömmigkeit)은 일단 몸의 욕구와 정신의 욕망을 단련하는 일종의 '고문단련'이다. 몸을 학대함으로써 반대로 정신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금욕적인 훈련임과 동시에 예수의 고난을 따르는 행위가 된다. 실제로 엄격한 수행전통(disciplina)이 발달했던 중세의 유럽에서 고난받는 예수의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장엄하게 왕좌에 앉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새로운 그리스도상이 열렬하게 각광 받았다. 교회의 장식으로서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었으며, 손을 맞대고 무릎을 끊고 기도하는 방식이 발전한 것도 이 시기였다.

13세기와 14세기에 민중들 사이에 폭넓게 고통의 신심이 유행하고 유럽 전체에 퍼졌던 집단심리의 시대적인 배경에는 흑사병과 유대인 대학살이 있다. 유럽 인구를 감소시킨 페스트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부재했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되었다. 공동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등의 혐의를 유대인들에게 씌우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폭력의 광기로서 민중들은 분노를 잠재웠다. 종교사적으로 이 당시에 자기고행 수행이 민중들 사이에 폭넓게 퍼진 점을 주목할 만하다. 집단적인 벌(페스트)을 받는 데에는, 우리의 잘못도 있을 것이다, 죄값을 치르면서 고행을 하면 신에게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종교적 상상

력이 팽배해 있던 시절이었다.

채찍질이 중세 유럽의 신심에서 중요한 종교적 수행이었던 데 반해,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형화된 의례는 없었다. 그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상처가 몸에 그대로 나타나는 성흔(Stigma)의 전통이 가톨릭 성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흔을 최초로 가진 인물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1181/1182-1226)로, 이후 오랫동안 중세 유럽 가톨릭의 신심을 자극했다. 특히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방식의 신앙에 커다란 호응을 했다. 고통에 기반한 '체험 신비주의'(Erlebnismystik)는 중세기 여성의 신앙을 대표했다. 그러나 십자가에 스스로를 못 박았던 실제 사례는 별로 없었으며, 몇몇 안되는 십자가 '스캔달'은 유럽에서 병리학적이고 범죄적인 기괴한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예수가 사형을 당했던 고대 로마 시대부터 십자가형은 아주 잔인한 형벌로 취급되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어떤 다른 형보다도 죽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괴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십자가형으로 죽는 사람들의 사망 원인은 서서히 숨이 막히며 진행되는 질식사이다. 마가복음 15장 44절("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 되었는지 묻고")에서 빌라도가 의아해 한 까닭은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빨리 죽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불과' 3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다.

유럽에서 몸과 고통에 대한 담론은 근대화 시기에 변화하기 시작한다. 17세기부터 고통에 대한 의학적 담론이 시작되었다. 갈망이나 욕정과 같은 감정은 인간 육체와 심리의 본성적인 특징으로 설명되었다. 문학작품에서 고통은 종교적 행위라기보다는 에로틱한 자극으로 바뀌었다. 의학의 발전, 계몽주의적인 시대 상황 속에 이성으로 무장하고 의심에 가득 찬 물질주의적인 시민계층은 고통이 없는 인생을 지향했다. 그리스도교 역시 신교나 구교 모두 이러한 시대 분위기에 맞추어 이성화되었다. 이

후 종교적 이유에서 자해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심지어 병리적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계몽주의 이후 고통의 관행이 종교비판의 직접적인 과녁대상이 되었음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19세기 반가톨릭 캠페인에서 종교비판자들은 "해충 같은 수사", "강간범 사제", "미신의 온실로서의 수도원"(495쪽)과 같은 극단적인 수사학을 사용했다. 마누엘 보루타(Manuel Borutta)의 표현처럼 근대화 담론에서 카톨릭은 서구의 '내적 오리엔트'(innerer Orient)로 전락하거나 '근대의 타자'(das Andere der Moderne)로 인식되었다. 19세기 이후 세속화(Säkularisierung) 담론에서 중세적인 신심과 수행이 남아있는 가톨릭 교회는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자는 '고통의 신비'를 강조하는 중세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이성'으로 무장한 근대의 종교 해석가들에게도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저자는 중세인과 근대인 모두 고통이라는 종교적 감정에 대해서 양 극단에 서 있다고 평가한다. 물론 이 글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독자들은 서구 계몽주의 정신에 바탕한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대적 입장에 더 친숙할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지적하듯이 우리는 세속화되고, 이성주의에 기반한 계몽주의적, 시민사회적인 관점을 이미 시대적이고 문화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는 '19세기의 자식들'이다. 세속주의적 관점과 계몽주의에 입각한 근대의 이상은 언제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보편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으며, 현상적으로도 언제까지 추구될는지 알 수 없다. 저자는 이어지는 다음 장들에서 아시아로 시선을 돌려, 필리핀에서의 고통 의례가 아직도 '중세'나 '전근대'를 살아가는 비서구인들의 이해불가능한 이색사건으로 '해외촌토픽'감이 아니라 '필리핀 근대적' 현상임을 주목한다.

2부("장소바꾸기" — 필리핀에서 가톨릭의 현지화와 번역)는 이베리아에서 온 가톨릭이라는 낯선 종교가 필리핀화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16세기와 17세기 스페인에서 참회와 금욕을 통해서 자기 절제를 하는 가톨릭 분위기가 팽배했다. 성인숭배, 기원과 맹세의 관습, 행렬, 마리아 현현, 기적과 같은 현상이 유행했다. 동시에 스페인은 1520년부터 아메리카를 개발했고 세계로 뻗어가는 스페인의 민족적인 자부심으로 '근대'(moderno)와 '진보'(progreso)를 자신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베리아적 가톨릭이 필리핀으로 전해졌다. 이베리아의 카톨릭이 필리핀 현지 종교와 만나서 필리핀적으로 '번역'(Übersetzung)되고 '현지화'(Lokalisierung)되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협상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선교 초기 필리핀에 예수의 모습이 호소력이 없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발가벗고 불쌍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의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가? 만약에 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참한 모습을 보는 거부감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은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다. 필리핀에 갔던 초기 선교사들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의 벌거벗은 남자'가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16세기 종교 개혁 시기에 가톨릭 교회의 반종교개혁적 운동으로 등장한 스페인의 예수회는 몸에 고통을 가하는 종교적 수행으로서의 채찍질 관행을 필리핀으로 가져갔다.

가톨릭이 들어오기 전 필리핀에는 '필리핀 샤머니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수많은 영혼치유사와 영매가 있었다. 필리핀인들은 유럽 가톨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수용했다. 예를 들어서, 연옥과 천국에 대한 종교적 상상력이 필리핀 현지에서는 커다란 호응을 얻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악마에 대해서도 거의 영향력이 미비하다. 이 점은 스페인 가톨릭이 전파된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리스도교적 악마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점과 대조할 때 큰 차이점을 보인다. 식민주의 개척과 더불어 같은 가톨릭이 전파되었을지라도 남미와 필리핀은 각자의 종교적 토양에 맞게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스페인 문화를 받아들였다

는 증거이다.

기존의 샤먼들은 가톨릭 전래 이후 새롭게 생긴 의식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현대까지도 이 경쟁관계는 이어진다.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종교적 카리스마를 가지게 되고 그녀/그를 숭상하는 신종교적인 운동으로 감지되기도 한다. 현대 필리핀의 미디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표적인 여성들을 자주 보도한다. 그들은 미디어 스타이며 동시에 샤먼과 같은 치유자(Heiler)이다. 현대 세계에서 자극적인 종교 의례는 언론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의례의 당사자들은 보다 강한 카리스마를 소유하게 되었다. 정기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자 하는 사람들 — 상당수는 여성들 — 은 모두가 샤먼과 같은 직업적인 치유사이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대중에게 공공연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치유사들의 치유력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못 박힘을 통해서 영적인 자본과 사회적인 자본을 동시에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회에 의해서 당시 유럽에서 자기수련(disciplina)과 참회의 일환으로 널리 퍼져있던 채찍질이 필리핀에 처음 도입된 시기는 1590년이었다. 다음 세기에 필리핀에서 이 전통은 남녀 노소 계층을 망라하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전파되어서 예수회 회원들은 그리스도 수난 금요일에만 현지인들에게 채찍질을 하도록 제한했을 정도였다. 이 시기에 유럽에서의 자기 고통에 대한 담론은 점차적으로 의학화되면서, 필리핀의 채찍질 현상에 대한 평가도 무정부주의나 정신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18세기 필리핀에서는 식민지 법령의 일환으로 고난 주간에도 거리와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채찍질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필리핀에서 채찍질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 수행 계층이 1960년대에는 하류 계층에 퍼져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성공한 의사, 변호사, 사업가 같은 중산층까지도 퍼져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사람들은 채찍질을 하기 전에 소원성취할 것을 기원하거나 서언(panata)을 한다.

직업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의례가 되었다.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게 해 달라든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게 해 달라는 등의 소원들이 자주 등장한다. 채찍질은 신의 도움으로 원하는 목표에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필리핀에서의 채찍질은 상당히 현대적인 현상으로서 현대 필리핀 사회의 도전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다.

3부(카피탄간에서의 채찍질,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성 그리스도 의례)는 필리핀에 현존하는 채찍질과 십자가 관행, 그리고 가톨릭 성인숭배에 대한 내용이다. 1부의 의도가 저자가 속한 문화의 낯설게 하기였다면, 이 장은 필리핀 문화를 친숙하게 다가오게 하는 목적이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카피탄간 지방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의식을 현지조사해서 작성한 민족지이다. 카피탄간은 마닐라에서 북서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소도시로, 불라칸(Bulacan) 주에 속해 있다. 불라칸 주에서는 필리핀 혁명(1896-1898) 시기에 스페인군과 맞선 격렬한 전투들이 있었다. 20세기 전반부에는 미국의 통치 아래 있었고, 이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이 주둔했다. 특히 일본 식민지의 잔혹한 경험은 이곳 주민들에게 역사적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저자는 1996년 4월 이 소도시에 현지 조사를 가서 십자가와 채찍질 의례를 처음으로 목격했다. 저자를 그곳으로 이끈 것은 사실 1994년 한 독일 신문의 문화란에 나와 있는 사진이었다. 필리핀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최초의 외국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사진에는 50대의 유럽 여인이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수녀가 되려다가 포기했던 것에 대해서 신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참회의 수단으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기절했다. 유럽에서 전해진 가톨릭이 필리핀에서 발달하고, 다시 유럽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 글로벌적인 현상에 관심이 간 저자는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연구를 하러 갔다. 저자를 처음 필리핀 내부 사회로 안내해 준 그 지방

사람은 필리핀 소도시에서 벌어지는 의례에 관심을 가지는 '외부인'들에게 늘 전하는, 평범함 동네 '내부인'의 관점으로 설명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러 오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피칠갑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피를 본다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 수난의 날일 성 금요일은 가족들의 행사이다. 카피탄간 지방 사람들은 그래도 외부인이 오면 늘 환대한다. 이곳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유행 이전에도 유명한 성지순례 장소였다. 여기에 성 그리스도 상(Sto. Cristo)이 있기 때문이다. 성 그리스도 상을 보러 순례객들이 여기로 찾아든다. 십자가에 처음으로 매달리기 시작한 루시도 성 그리스도 상을 찾아서 카피탄간에 왔다가 그 일을 시작한 것이다. 성 그리스도상은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치유되었다.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 모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253쪽)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루시 레예스(Lucy Reyes)는 카피탄간에서 청소년 때부터 매년 수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렸던 여인이다. 그녀는 이를 통해서 필리핀에서 유명한 치유사가 되었고 텔레비전에도 자주 출연한다. 저자는 이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의 모델이 된 이 여인(1960년 생)을 수차례에 걸쳐 만났다. 그녀는 "신이 원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아이 없이 살고 있다. 십자가 의식과 관련해서, 그녀는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성 그리스도가 그녀를 불렀다는 것이다. "나의 수호신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지요. 처음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희생을 하기에는 어린 나이였어요. 부모님들도 반대했어요. 신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은 제가 죽을까봐 걱정했었어요. 저는 그냥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신은 제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신의 은총이 저를

보호했고, 지난 수십년 동안 위험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박힌 후 며칠이 지나면 상처들은 완전히 아물었어요."(380쪽) 루시가 신의 '부름'을 받게 된 과정은 다른 치유사들과 흡사하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는 병마가 있다가 16세에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 가는 병원마다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했다. 친척 중 치유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녀를 방문했다. 이후부터 루씨는 아기 예수가 반복해서 꿈에 나타났다. 그녀에게 치유사가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메시지를 거부했다. 그러면 아픈 것이 재발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아기 예수의 메시지를 받아 들이고, 치유사로서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그 능력이란 몽환상태(Trance)에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다. 루시의 능력이 알려지자 따르는 여자들의 무리가 생기고 그녀가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었다. 루시에게서 치유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녀에게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어느날 아기 예수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명령했다. 경악을 해서 부인했지만 거듭되는 병 때문에 허락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아기예수가 내게 명령할 것을 수행할 뿐이에요."(383쪽)

성 그리스도(Sto. Cristo)란 이 지방에 있는, 160년 쯤 되었다고 믿어지는 — 그러나 저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60년대인 —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 상이다. 순례지처럼 이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상을 만지면서 치유받기를 기원한다. 성 그리스도 상을 돌보는 관리인들(caretaker)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치유력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그리스도 상을 목욕재계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향유를 뿌리거나 꽃단장을 하고, 행사가 있을 때 이동시키면서 상을 보호한다. 이 관리자들 또한 꿈을 통하여 현시를 받거나, 일상적으로 신비적인 경험을 한다. 수난의 금요일이 오면 그리스도상은 축제옷으로 갈아입고 화관으로 장식되어 있고, 많은 순례객들이 방문한다. 순례

객들은 그리스도 상의 몸이나 머리를 만진다. 이 지방에는 성 그리스도 상을 통하여 치유하는 기적이 있다고 믿어지는데, 꿈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채찍질이나 십자가에 매달리는 의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거부를 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요구에 순응하는, 각주와 같은 꿈속에서의 경험이 일반적이다.[1] 저자가 집중 인터뷰한 피옹이라는 남자는 병마에 시달리다가 꿈속에서 계시를 받은 후 그리스도 수난 성 금요일에 벌떡 일어나서 동생과 함께 채찍질 의례가 준비된 곳으로 갔다. 도착해서는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가서 먼저 때려 달라고 했다. 그의 등에 채찍질이 가해졌을 때 피 대신 악취가 나는 고름이 나왔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구역질이 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피옹은 스스로 채찍질했고 그리고 나서 거짓말처럼 다시 건강해졌다. 건강해지면 하겠다고 신 앞에서 약속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누어주는 봉사를 했다. 이것은 병을 낫게 해준 그리스도에 대한 일종의 '감사의 교환'(필리핀 어로 utang na loob)이다. 사람들은 채찍질하기 전에 대부분 맹세를 하고, 치유나 기적이 일어나면 그 맹세를 지키는데, 이것은 일종의 종교적 교환이다. 그리스도 수난 성 금요일에는 상체가 피로 범벅된 사람들이 이 지역을 여기 저기 돌아다닌다. 특히 성당 주변의 길에 엎드린 사람들의 몸통, 팔, 다리가 연속적으로 채찍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날 하루종일 성당을 순례하듯이 돌면서 이러한 의식을 반복한다. 채찍으로 사용되는 도구는 노끈으로 묶인 10-20여 개

1) 저자가 순례객들 중 한 명인 피옹(Piong)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재의 수요일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나에게로 와서 너를 채찍질하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성 목요일에 그리스도가 다시 내게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해라. 그러면 건강해질 것이다."
몸이 아픈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마침내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가겠습니다."(284쪽)

의 가느다란 대나무 막대기들이다. 채찍질이 끝나면 물로 몸을 씻는다. 사람들은 이 상처가 비교적 문제 없이 빨리 낫는다고 이야기한다.

십자가를 매고 가는 의례를 행하는 사람들의 모티브도 채찍질하는 사람들과 비슷하다. 대부분 큰 병에 걸렸을 때나 개인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꿈에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낫게 해준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저서의 이 장에서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현상을 두고 벌어지는 여러 인물들의 다양한 상황과 의례를 하는 동기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다. 관련 사진들도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필리핀 지역경제적인 맥락(순례로 인한 관광)과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사회 심리학적인 맥락(의례를 통한 위기의 극복 과정)으로 해석한다.

채찍질이나 십자가행과 같은 필리핀의 관행은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인 행위, 비유럽 민중 가톨릭의 낙후성으로 간주되며 보통 해외 토픽란의 선정적인 사진과 더불어 실린다. 손바닥과 발등에 대못이 박힌 모습과 채찍질 당하며 피가 철철 흘러서 번질거리는 등판이 클로즈업된다. 그런 사진 밑에 달려 있는 일반적인 문구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미디어의 시각을 보여준다. '사람 잡는 종교, 중세로의 회귀.' 가능한 희한하고 괴기하게 보이도록 만들면서 행동하는 주체들과 그들이 속한 문화를 현대 문명과 동떨어진 이미지로 만든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필리핀이, '계몽'되기 이전의 '암흑의 유럽 중세'를 여전히 살아간다는 식의, 낙후된 현재의 비서구 문화에서 유럽의 과거를 찾는 오류를 맹렬하게 비판한다. 필리핀에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현상은 오히려 근대의 발명품이다. 필리핀이 급격한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던 196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채찍질과는 달리 십자가 의례는 '수입'되지 않고, 근래에 필리핀에서 '발명된 전통'(invented tradition)이다.

저자는 이런 현상을 필리핀 전통의 종교문화의 논리에 따라서 설명한

다. 필리핀의 종교적 신심은 상호주의적 윤리에 기반한다. 어린 아기를 보살피는 것처럼 예수상을 장식하고, 옷 입히고, 향유를 끼얹는 행위를 통해서, 신자들이 경배 대상에 대해 가지는 내적 친밀성과 헌신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신자들은 경배하는 대상인 예수가 자신들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호주의가 일종의 종교적 후원자와 종교적 고객의 관계로 분석되고 있다. 기본적인 틀은 세속사회의 경제관념과 비슷한 논리지만, 이해타산을 넘어서서, '이상적인 후원자'에 대하여 자발적이고 관념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종교적 상호주의이다. 필리핀에서 페니텐시야(Penitensiya)라고 하는 불리는, 스스로의 몸에 고통을 가하는 종교적인 의례의 발전을 설명하는 저자의 모델도 이러한 종교적 상호주의이다. 되돌려 주기를 믿으면서 바치는 것(do-ut-des)은 희생의례의 속성이다.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를 매고 행렬하는 의례(pasang Cruz)와 그 뒤에 따르는 십자가에 못 박힘은 희생제의(sakripisyo)의 속성을 띤다. 희생제의란 원래 신을 위해서 동물을 희생양으로 바치는 의례이다. 십자가형이나 채찍질에서 바쳐지는 제물은 자기 자신이 된다.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고통을 따른다는 의미가 더해진다.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는 '희생물'에 대한 동정심(awa)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damay)한다.

필리핀에서 채찍질이나 십자가에 못 박힘과 같은 고통의 의례(Passionsritual)는 서구 중세에 수도원의 어두침침한 방 속에서나 동굴에서 행했을 것 같은 금욕주의적인 고행자들이 세상을 등지고 수행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필리핀에서는 유럽의 고행문화의 결집소인 수도원들이 퍼지지 않았고 금욕주의적 고행전통이 발전하지도 않았다. 또한 세상을 등진 은둔자나 고통의 신비주의의 전통이 알려지지도 않았다. 즉 지금까지 설명한 몸에 고통을 주는 필리핀의 문화는 서구식의 고행전통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는 현대 미디어학의

이론을 사용하여 20세기 말,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의례적 행위를 분석한다. 자발적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클로즈업하면서 돌아가는 카메라, 번쩍이는 사진기 앞에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행하는 것으로 의례적 행위를 분석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고통당하는 신체를 통해서 강력한 힘, 죄의식, 부끄러움, 욕망, 고통의 감정을 몸을 통해서 극적 장면으로 연출하는 일종의 공공적인 '연극'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채찍으로 맞고 못에 박히는 고통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부끄러움, 욕망, 고통과 같은 내면성을 몸의 극한적인 경험을 통해서 표출하면 그러한 고통을 마주하는 '관객'들은 흥미진진하게, 혹은 걱정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구경하게 된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 대부분 종교적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 황홀경(Trance) 상태에서 못 박히는 통증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그에 반해서 큰 못이 신체에 박히는 망치 소리 하나하나에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는 쪽은 십자가가 있는 무대를 보고 있는 관중들이다. 앞에서 인용한 현지인 인터뷰를 보면, 십자가 의례가 피칠갑 된다고 생각하기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의례의 순간에는 피가 나지 않는다. 피가 나는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 지나간 후, 십자가 의례가 끝난 다음이다. 피가 철철 흐른다는 것은 실재하지 않는 상상이다. 저자는 이것을 필리핀의 혁명시기 식민지에 반대한 엄청난 유혈 전투가 있었던 것과 연결시켜서 민중들의 정치적인 상상력이 종교적인 상상력과 결합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십자가 의례가 발달한 카피탄간은 19세기 말에 스페인 식민지에 반대하는 필리핀 의병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다. 스페인군과 필리핀인들 사이의 유혈 사태가 엄청났는데, 민중들은 십자가 의례에서 필리핀 반란군의 피를 연상한다. 그리스도 수난 이야기나 그리스도 수난극이 필리핀의 19세기 반식민주의 운동 때 많이 재연되었을 때 고통당하는 필리핀인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피의 혁명을 상징하며 반식

민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공연되었음을 필리핀 역사가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의례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현지 필리핀의 그리스도 수난의 재현은 식민지였던 스페인 가톨릭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 가톨릭의 고행 문화가 죄책감, 원죄, 자발적 형벌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면, 필리핀의 고난 의례는 유럽적 참회의 신심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부활절 한 주 전에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리는 일환으로 거리에서 공공연하게 의례가 행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위기의 상황에 있는 개인들에 의해서 행해진다. 의례에 참여한 필리핀인들의 자기 진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병이 나거나 가족간에 갈등을 겪거나 개인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한다. 이러한 개인 의식은 '위기를 극복하는 의례'(Krisenbewältigungsritual)이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왜 스스로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가?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채찍질이나 십자가 의례와 같은 고통의 의식을 통해서 '고통없음'(Schmerzlosigkeit)의 상태를 갈구한다. 저자는 의례에 참여해서 고통을 견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 한결같이 사람들이 통증에서 해방된 느낌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정화에서 오는 환희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다. 못 박힘이나 채찍질을 당할 때 고통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그들이 신에게 가깝게 다가갔다는 적극적인 증거로 간주된다. 지상의 '내'가 고행을 통해서 신적인 초월의 경험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세 유럽 고행자들의 종교적 자기 증언과는 다른 맥락이다. 때문에 저자는 서구에서 11세기부터 유행했던 고행의 전통과 고통에 대한 해석학이 필리핀인들의 종교 경험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본다.

저자의 인터뷰 결과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

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루시 레예스 인터뷰 내용 참고). 그렇다면 의례 행위의 주체가 누구란 말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는 종교행위에서의 주체, 행동, 권력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샤먼/치유사들인데 이들의 생애사는 대부분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들은 치유사가 되라는 '신의 명령'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신의 요청을 받기도 한다. 그들은 십자가 의례를 한 후 위기가 극복되면서 치유사로서의 힘을 얻게 된다. 더불어 지역 사회에서 신봉자들을 얻게 되고 신자 공동체에게 종교적 자원(치유)을 제공하고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즉 십자가에 매달리는 현상에는, '신'이 치유사에게 내린 계시를 매개로 한 종교적 카리스마의 획득과 보존, 신자 공동체, 지역 사회의 종교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원' 문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 샤머니즘에서 강신무들이 입문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누군가 신병을 앓게 되면 만신으로서의 운명을 알게 되고, 수많은 거부 끝에 신을 모시기로 결정하고 내림굿을 받는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신 작두를 탄다. 신이 온전히 들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차츰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단골들을 얻게 된다. 단골들과 만신은 상호 도움을 주면서 지역 공동체의 종교적 구성 단위가 된다. 한국 샤머니즘과 비교하는 것은 이 글의 요지를 벗어나므로 비교연구는 관심있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둔다.

2. 고통 담론과 성스러운 고통의 신체적 재현

이 책은 '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해하는가? 스스로 가하는

고통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답이다. 즉 무엇이 아픔을 '성스러운 고통'(der heilige Schmerz)으로 만드느냐이다. 그에 답하기 위해서 저자는 필리핀으로부터 유럽까지 긴 여정을 거쳤다. 저자는 고통담론의 세 가지 모델을 보여준다. 고통을 인지하는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법률적인 모델(das juristische Modell)로서 죄를 보상하는 원칙에 근거한다. 그리스도 금욕주의자들은 현재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통을 죄에 대한 벌을 앞당겨서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 기본적으로 인간을 죄의 존재로 생각했다.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인간에게 필수적이고 인간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벌을 받는 시점이다. 지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빨리 벌을 받는 것이 연옥에서 죄를 쌓는 것보다 낫다. 필리핀 종교문화의 문법으로 설명되었던 종교적인 상호관계 매커니즘도 넓게 보면 법률적인 모델에 속한다. 상호관계란 반대급부를 바라고 뭔가를 주는 것을 말한다. 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 종교적 고통에 대입해서 말해 본다면, 고통이 선물이며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나 피안 세계에서의 보상이다.

두 번째는 의학적 모델(das medizinische Modell)이다. 병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이 있듯이, 잘 드는 가루약은 혀에 쓰고, 새 살을 돋게 하는 연고는 피부에 스며들 때 쓰라리다. 이런 생각은 고통에 대한 서구인들의 기본적인 상상력이다. 약은 쓰지만, 치유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면 그동안 저지른 죄라는 병을 치유하고 앞으로 걸릴 병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있다. 서양 중세에 유행했던 고통의 신비가들은 자발적으로 고통을 줌으로써 영혼이 병드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세 번째는 군사 모델(das militärische Modell)이다. 고통을 겪고 있는 몸을 맞서 싸워야 하는 적으로 간주한다. 고통 자체가 못살게 구는 침입자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몸이고, 몸에 갇혀 있는 영혼이다. 이런 몸이야말로 대적해야 할 '적'이다. 고통은 이런 몸을 억누르고 제압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다.

중세의 유럽이나 현대 필리핀의 고통 담론을 보았을 때,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종교적 감수성이 얼마나 다른가를 독자들은 내심 비교하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의 종교는 웰빙을 추구한다. 돈 벌고 경쟁하느라 힘든 사회에서 다친 마음을 '치유'하고 지친 심신을 '힐링'하는 산업에 종교도 한 몫 하고 있다. 교회에 가면 부자가 된다거나, 백일기도를 하면 자식의 수능 점수가 올라간다는 식의 얄팍한 종교성은 우리 시대의 표면적이고 천박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 그에 반해서 스스로에게 자해를 하면서 고난을 부과하는 종교적 상상력은 오히려 깊이 있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약아빠지게 세속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종교성에 대한 피로감 때문일까?

'고난'(Leid)과 '아픔'(Schmerz)은 동일하지 않다. '아픔'은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차원에서 육체 조직의 손상인데 반해서, '고난'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차원 둘 다를 포함한다. 육체 조직이 손상된 아픔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고난'을 특권화하는 종교에서는 반드시 스스로 가하는 아픔을 특화하지는 않는다. 종교적인 동기에서 아픔을 만드는 의례는 반대로 고난을 특화하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다. 문화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는 종교적 고통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고통의 문제는 모순적이게도 어떻게 그것을 피하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당하냐**에 있다.'고 했다. 그리하여 고통을 '당할 만큼 의미있게 고통스럽게'(to make suffering sufferable) 만드는 것이 종교적인 고통의 핵심이다.[2] 인간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고통의 경험을 이해가능하게 만들고, 또한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게까지 하는 효율성을 지니는 것이 종교라는 문화적인 시스템

2) 클리퍼드 기어츠(원작 1966, 번역 2009), 『문화의 해석』, 까치. 본문의 기어츠 글은 서평 책 492쪽에서 인용.

이라는 기어츠의 견해에 저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여자 수도원에서 여성 신비주의자들은 몸에 고통을 가하는 의식을 즐겨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몸을 학대한 것이 아니다. 몸은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매체이다. 요체는 고통을 통해서 몸을 초월하는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것에 있다. 그리스도교만큼 고통스러워하는 신체에 집중한 종교는 없다.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병환), 아니면 한 사회가 사회문화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페스트로 인한 사회혼란) 개인의 신체가 공적인 의미를 담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다양한 문화학 이론을 사용하여 그리스도교의 몸과 고통의 연관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자의 이론적인 박학다식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현란하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실험적인 이론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1세기 문화학에서 많이 논의되는 '도상학적인 전환'(iconic turn)으로 고통의 의례를 해석하는 논리를 따라가 보면, 그리스도의 몸은 고통을 전달하는 도상(Bild)이자 매개체(Medium)이다. 동시에 종교적인 동기에서 고통을 가하는 현상은 극적으로 재현되는 연극적인 구조라고 본다. 필리핀에서 재현되는 십자가 의례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감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관중'들이 있기에 가능하고, 채찍질 행위는 명백한 '공적 연극'이다. 이런 이론들에서는 형법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에로틱한 맥락 어디에 위치하고 있든 상관없이 고통의 경험이 등가의 감정으로 놓고 해석된다. 종교성을 새로운 요소와 결합시킨다는 신선한 점도 있지만, 필자에게는 아주 약간 어떤 불편함을 주었다. 유사성이 있지만 몇가지 동일한 감정의 차원만으로는 질적 차원이 다른 경험을 동일선상에서 다루는 것은 다소 과장된 이론적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종교의례를 지나치게 현대 미학적이고 미디어적인 이론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었다. 어쩌면 이 불편함 내지 낯설음은

종교를 다른 문화적 범주와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적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에 익숙해진, 다시 말하자면, 복합적인 인간의 문화현상을 연구하면서도 필요이상으로 나누어진 분과 학문 체계에서 종교를 특별나게 '읽도록' 교육받은 서평자의 편향된 기호일 가능성이 크다.

현대 사회에 비록 주변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고통의 재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퍼포먼스 아트 영역을 개척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c 1946년생)의 행위 예술을 보면, 스스로를 극한의 신체적 고통의 상황에 놓음으로써 경계를 넘고 터부를 무너뜨린다. 중세의 여성 신비주의자들처럼 고통을 통해서 내면을 변화시키고 몸을 초월하려는 지향점이 그녀의 예술성을 특징 짓는다. 21세기에 들어서 전세계 수백만명이 즐겨보는 호러 영화로 쏘우(Saw, 미국, 2004)가 있다. 영화 속 인간들이 고문당하고 신체가 난도질당하는 것을 관객들은 숨죽이고 본다. 왜 그렇게 많은 매니아들이 이런 잔혹한 영화를 보는 것인가?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상세계에서 느끼지 못하는 모종의 쾌감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영화 관람자는 등장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희생자가 되는 동시에 고통을 즐기는 가해자가 되는 구조이다. 신체가 변형되고 통증이 오는 그러한 상황이 내 눈 앞에서 펼쳐지면서 고통과 더불어 부인 못할 쾌감이 존재함을, 이 영화 시리즈의 성공은 반증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문법을 읽어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필리핀 십자가형의 고통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계몽화된 현대에 살고 있는 서구인들이 종교를 지나치게 내면화하고 이성화하려는 것이 유럽의 문화적 산물 — 특히 중산층 개신교 — 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책을 끝낸다. "필리핀에서 스스로를 못 박게 하는 현상은 계몽되지 않은 전근대를 살고 있는 원시적인 유산이 아니다. 오히려 현대세계에 대한

답변이다. 21세기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의례는 있다. 십자가 의례가 벌어지는 무대 위와 무대 앞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 그들은 우리와 '동시대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514쪽) 이 책의 끝맺음에 대해서 필자는 사실 조금 실망했다. 책 마지막 장을 펼치면서 아무도 몰랐던, 그 이전에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지적인 깨달음을 얻으리라 희망했던 것은 500페이지가 넘는 글을 읽은 남다른 보상감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의 결론은 종교학과 문화 인류학적 전제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다소 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지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은 너무 담론으로만 이런 것에 익숙해 왔지 않았나 싶다. 한국인이 문화적으로 덜 존경하는, 심지어는 말은 안해도 속으로 얕잡아 보기도 하는 제 3세계의 종교문화의 문법을 심도있게 독해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속한 문화의 전제를 진지하게 반추하는 사람이 우리 중 몇이나 되는지 솔직하게 물어 보면 알 것이다.

서평을 하면서 외국어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능하면 요약적으로 충실히 소개하는 것에 비중을 두었다. 저자는 비서구 기독교의 주변적이고 특이한 민중 관습 속에서 타자를 이해하는 방식을 분석하면서 식민주의와 식민지 이후 필리핀의 자생적인 근대 속에서 종교라는 이해하기 힘든 '애매한 범주'(dubiose Kategorie)에 주목했다. 왜 애매하고 모호한가를 물으면서, 특히 필리핀의 종교 현상을 다양한 이론으로 풀어 가는 저자의 이론적 해박함이 상당하다. 식민주의와 후기 식민주의적 근대, 종교사적으로 과거의 종교를 분석하는 가능성과 제한점, 소위 말하는 '고등종교'(Hochreligion)와 '민속종교'(Volksreligion)의 관계, 의례/공연/대중성의 문제, 그리고 이미지, 몸과 고통의 문제와 같은 종교연구의 뜨거운 논쟁점들이 필리핀의 종교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다. 문화학으로서의 종교학의 이론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뿐만이

아니라, 종교와 예술에서 몸을 매개로 고통을 재현하는 것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연구하는 다방면의 연구자들에게 좋은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책이다.